

최현우의 수리수리 마수리!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미술사 최현우의 'ASK 전국투어'

27일까지 20주년 업그레이드 버전 공연
“공연도중에 옆사람과 ‘회의’는 곤란해요
매일 2~3시간 연습...저도 어렵게 살아요”

“손 좀 만져 봐도 되겠습니까?”

미술사 최현우를 만나자마자 요구했다. 쥐고 있던 카드가 장미로 변하는가 하면, 두 개의 동전을 순식간에 네 개로 만드는 미술사의 손이 궁금했다. 굳은살 없는 평범한 남자의 손이었다. 보통 남자들의 손보다 조금 작았다. 심지어 팔랑 팔랑했다.

최현우는 요즘 공연 중이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아 선보였던 ‘ASK?’(이하 애스크)를 업그레이드해 다시 무대에 올렸다. 8월27일까지 서울 능동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100번 봐도 모를 걸?” 해리포터의 실사판으로 불리는 미술사 최현우가 20주년을 맞아 제작한 ‘ASK?’를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렸다. 자신의 장기인 카드마술을 선보이기 전 아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현우. 사진제공 | 라온플레이

- 지난해가 데뷔 20주년이었고, 굉장히 떠들썩했다. 그래서 올해는 안식년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애스크 전국투어도 할 거다.”
- 애스크는 데뷔 20주년 기념공연이었다. 한번 하고 마는 공연이 아니었던가.
“날카로운 질문이다(웃음). 20주년 기념공연이지만 3년 단위로 공연을 할 계획이다. 23주년, 26주년 이런 식으로. 20주년 타이틀은 없애져도 애스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나.”
- 최현우의 마술쇼는 언제나 분명하고 확고한 콘셉트가 있었다.
“애스크는 내 자서전같은 작품이다. 그리고 제목처럼 질문한다. 왜 마술을 하는가. 사람들은 왜 속임수라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마술쇼를 보는가.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가.”
- 뮤지컬, 연극, 음악회와 달리 마술쇼는 관객들이 주인공을 ‘노려보는’ 경향이 강하다. ‘속지 말아야지’하고 경계를 한다거나 할까.
“맞다. 그래서 힘들다. 마술사의 트릭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연 도중에 옆 사람과 ‘회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되니까. 특히 남자들은 여친이 마술을 신기해하는 ‘꿀’을 못 보는 것 같다(웃음).

즐겁게 보시고 회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시면 좋겠다.”
- 최근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본의 아니게 나이(40세)가 밝혀지기도 했는데. “흐흐, 어느덧 친구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공연장에 온다. 아빠가 ‘아저씨한테 인사드려야지’ 하면 아이들이 당황하더라. 그럴 땐 ‘괜찮아. 오빠라고 해’한다.”
- 궁금한 것이 있다. 마술사들은 다른 마술사의 마술을 척 보면 다 아나.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는 사람이 하는 마술이라면 90% 이상 안다. 하지만 정말 모를 때도 있다. 마술을림픽에는 발명부문이 있다. 여기 나오는 마술은 심사위원들도 모른다. 우리가 봐도 ‘와 신기하다’ 소리가 나온다.”
- 마술사끼리 ‘그거 어떻게 한 거냐’ 서로 물기도 하나. 자존심이 있어서 안 물어볼 것 같다.
“너무 궁금하면 물어본다. 물론 친한 사이일 때만. 물어보면 ‘네가 생각한 걸 말해봐’ 하는 경우가 많다. 내 생각을 말하면 ‘몇 퍼센트 정도 맞았다’하는 식이다.”
- 마술사도 평소 연습을 하나.
“매일 한다. 기본적으로 2~3시간씩. 연습노트 같

은 게 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다.”
- 영화 타짜에는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는 명대사가 나온다. 마술사에게도 적용되는 말 같은데.
“밀장빼기 같은 기술은 우리도 다 한다. 영화처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소리가 다르니까. 하지만 손이 눈보다 빠르지는 않다. 손이 빠른 게 아니고 손이 빠르게 느껴지도록 테크닉을 쓰는 거지. (시선)유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정말 어렵게 삽니다(웃음).”

최근 최현우는 새로운 계획 하나를 세웠다. 미국 오프브로드웨이의 200석 남짓한 소극장에서 본 마술쇼가 거기였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최현우의 이름을 걸고 마술쇼를 하는 것이다. 최현우는 “멀리 보고 여러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은 공연 중인 애스크에 ‘올인’이다. 인터뷰에 응해준 최현우에게 보답으로 나의 마술을 보여주기로 했다. 손에 동전 한 개를 올려놓은 뒤 옮겨주고는 짧은 주문을 외우며 흔들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짹’하고 펴 보였을 때 최현우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내 손바닥 위에는 동전 한 개가 놓여 있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엄마 아빠 어디가

●통영한산대접축제 2017(8.11~8.15 통영 문화마당 및 병선마당, 통영역, 이순신공원)



‘동양의 나폴리’ 경남 통영시 한산면에서 열리는 문화제다. 1962년 5월 한산대첩기념제전으로 시작해 경남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조선시대 통제사가 삼도 수군 군사를 점검하는 군점 행사,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 행렬, 한산대첩 재현 등을 진행한다. 통영 강구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선박 페레이드가 장관이다. 여름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한려수도 바다축제도 함께 열린다. 수군제형 노젓기대회, 카누 노젓기 대회 등도 볼 수 있다.

●울산 워터버블페스티벌 2017(8.11 ~ 8.12 울산 젊음의 거리, 소망서 사거리)



울산 성남동 상인회와 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4년째 열리는 축제이다. 친숙한 놀이기구인 물총과 버블을 이용해 다양한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피서 행사를 만들었다. 버블파티, 물총싸움과 예전의 단체 돌싸움, 석전을 현대적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300 대 300 단체 공 던지기도 진행해 관심을 끈다.

●서울문화의 밤 아랑축제(8.12~8.13 서울 서울광장)

밤에 빛을 발하는 아랑용품을 이용하여 시민참여형 아랑 운동회와 아랑패션쇼가 펼쳐진다. 관련 프로그램으로 아랑메이커스, 아랑패션쇼, 아랑이퍼포먼스, 아랑 가면무도회, 아랑운동회 등이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주말엔 전시회

●‘그림의 미술사’에서 특별전

20세기를 대표하는 네덜란드 판화가 마우리츠 코리넬리스 에셔(1898~1972)의 전시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판화가 이면서 드로잉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명성을 떨쳤다. 철저히 수학적으로 계산된 세밀한 선을 사용하는 화풍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복과 순환, 변형, 무한한 공간, 이율배반 등에서의 작품은 마치 종이 위에서 펼쳐지는 마술처럼 느껴진다. 대표작인 ‘그리는 손’, ‘올라가기와 내려가기’, ‘말을 탄 남자’ 등 에셔의 대표작 130여 점을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10월15일까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새콤 달콤 매콤이 한데 어우러진 여수 백천선어마을 서대회무침(가운데)과 들게로 담근 간장게장(왼쪽), 삼치 갈치 등으로 이뤄진 모듬 생선구이다. 셋 모두 여름철 식욕을 돋구는 ‘밥도둑’들이다.

매콤한 서대회무침·깔끔한 경주국밥 ‘밥도둑이네’

주말미식

여수 백천선어마을 제철음식 서대회무침
부산 경주국밥 한그릇에 여행피로도 홀홀

KTX를 이용한 부담없는 1박2일 단기여행으로 좋은 여수와 부산. 풍광 좋은 명승지부터 과거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근현대 유적까지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들이다. 두 곳은 또한 볼거리 못지않게 지역 개성이 듬뿍 담긴 먹거리로도 자부심이 대단하다. 약간의 시간과 발품만 투자하면 향토색 짙은 재료로 맛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가격 또한 착한 맛집들을 만날 수 있다.

●매력적인 식감과 푸짐한 상차림, 여수 백천선어마을의 서대회무침

서대는 몸이 납작한 것이 가자미와 비슷한 생선이다. 정확한 명칭은 참서대. 늦봄부터 초가을까지가 제철인 생선으로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혀 이쪽 섬이나 항구에 서대를 이용한 요리가 많다. 칼슘과 인이 풍부하고 생선살 자체의 맛은 담백하다. 식감은 부드러운 편이다. 보통은 코다리처럼 꾸덕꾸덕하게 말려 구이나 조림으로 먹는다.

그런데 여수에서는 이를 회무침으로 즐겨 먹는다. 잔칫상이나 제사상에는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소울푸드’다. 여수 서대회무침의 큰 특징은 새콤한 풍미를 더하기 위해 막걸리 식초로 아재와 함께 무친다는 점. 무



부산 경주국밥과 수육세트

더운 여름철 잘 버무린 매콤 새콤 달콤한 서대회무침을 공기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네’라는 찬사가 절로 나온다.

지역 대표 음식이다 보니 여수에는 많은 서대회 전문집이 있다. 그중 서대회무침을 맛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KTX 여수엑스포역 근처인 공화동 백천선어마을.

남도답게 토하젓, 꼬막무침, 갯감치 등 아기자기한 기본 찬으로 꾸며진 넉넉한 상차림이 우선 인상적이다. 주인공인 서대회무침은 양념과 생선이 잘 어우러져 식감이 매력적이고, 식욕을 돋구는 조금 자극적인 맛도 좋다.

서대회무침 못지않게 함께 주문했던 생선구이도 이 집의 주력메뉴. 삼치, 갈치 등을 구어 양념장을 얹어 내놓는다. 역시 공기밥을 생각나게 만드는 밥도둑 계열이다.

#사족:서대와 모양이 비슷한 종중 착각하는 생선으로 박대가 있다. 군산 지역이 유명하네, 역시 주로 말려서 조림이나 구이로 먹는다.

●깔끔한 국물맛, 부산 경주국밥의 수육백반

부산을 방문하거나 여행한다면 ‘머스트 잇’(must eat) 메뉴로 꼽는 것이 돼지국밥과 밀면이다. 돼지국밥의 인기는 이제는 거의 전국구 서울에서도 수준급으로 내는 곳이 여럿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본고장에서 먹는 것이 최고다.

부산여행의 출발점인 KTX 부산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인 초량2동 백제병원(구) 사거리 근처인 경주국밥은 부산사람들이 추천하는 돼지국밥 맛집이다. 가게 정면에 위치한 돼지국이 끓고 있는 커다란 가마솥이 인상적이다. 훔과 좌식 테이블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앉아도 30명 정도일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돼지국밥은 특유의 풍미와 ‘입술이 짹짹 붙는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진한 국물을 내세우는 집과 반대로 고유의 맛은 유지하지만 국물이 상대적으로 맑고 깔끔한 맛맛을 강조하는 곳으로 나눌 수 있다. 경주국밥은 후자이다. 곱당 수준의 맑은 국을 내는 서울 광화문국밥이나 서교동 육동식 정도는 아니어도 부산 돼지국밥으로서는 꽤 담백한 편이다. 돼지국밥 특유의 냄세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 반대로 현지의 진한 맛을 기대한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다.

경주국밥의 인상적인 점은 엄청난 가성비. 돼지국밥, 내장국밥, 순대국밥, 쇠어국밥 모두 6500원. 이곳에서 맛보길 강추하는 메뉴는 수육과 국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수육백반이다. 잘 삶은 빗깇까지 고운 돼지수육과 국밥을 함께 내는데, 9000원이다. 국밥 못지않게 입맛당기는 순대(4000원) 한접시를 시켜 여행길 낯설 한 잔의 호기를 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글·사진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주말공감

●‘애나벨:인형의 주인’(9일 개봉 | 감독 데이비드 F. 샌드버그 | 스테파니 시그만 | 109분 | 15세 관람가)

인형장인과 그의 아내는 비극적인 사고로 어린 딸을 잃는다. 12년 후, 사고가 일어난 집에 고아원 소녀들과 수녀가 함께 살게 된다. 딸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존재도 받아들일겠다고 기도하는 엄마. 하지만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나 가족을 엽습한다. 교회의 도움으로 악마를 인형 속에 가뒀지만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존재가 돌아온다. 국내 개봉 공포영화 외화 가운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컨저링’ 시리즈의 내용과 이어지는 공포 스릴러. ‘컨저링’에 등장한 악령 거둔 애나벨 인형의 탄생을 다룬다.

●아리아나 그란데 ‘데인저러스 우먼’(15일(오후8시) | 서울 고척스카이돔 | 만 12세)

미국 ‘팝의 요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다. 지난해 발매한 3집 ‘데인저러스 우먼’을 기념해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월드투어가 드디어 한국 팬들을 찾아온다. 5월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그 충격으로 투어를 잠시 중단했다 12일 일본 공연으로 다시 재개했다. 처음 내한하는 아리아나 그란데는 탁월한 보컬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직접 국내 팬들에게 선보인다. 02-3141-9226

●쓸쓸하고 찬란하신(神) ‘도깨비’(12·19·26일(오후 5시) | 서울 다동 한국콘텐츠진흥원 CKL 기업지원센터 9층 | 80분 | 만 12세)

‘도깨비’의 여운을 아직 잊지 못한다면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감성 총만한 음악 향연을 즐겨보자. 이번 공연은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각종 OST가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흐른다. 드라마 주제곡인 찬열과 편지의 ‘스테이 위드 미’, 크라쉬의 ‘뷰티풀’ 등 총 13곡이 준비된다. 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02-2664-0125

신간

●한국힙합 예블루션 (김봉현 저·그림 SUIKO | 월북)



힙합 저널리스트 김봉현이 한국힙합의 모든 것을 신명나게 풀어냈다. 탁월한 이야기꾼인 저자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국힙합의 지형도가 머릿속에 완성된다. 홍서범의 ‘김삿갓’부터 넉살의 ‘작은 것들의 신’, 듀스의 ‘GO! GO! GO!’부터 일리네어 레코드의 ‘연결고리’에 이르기까지 한국힙합은 매년 눈부신 진화를 거듭해 왔다. 한국에 힙합이 상륙한 1989년부터 문화의 주류로 등극한 2016년까지, 해마다 대표곡을 선정해 의미와 가치를 꼼꼼하게 짚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